

교실 밖 교실 'Y교육박람회'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Beyond The Classroom)'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전국단위 교육박람회인 'Y교육박람회 2024'를 개최한다.

지난해 지자체 행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 교육박람회를 표방,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미래사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담은 교육포럼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화두를 던지며 성공적인 도약을 시작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학교 밖 공교육의 실천적 주체인 행정이 선도하는 '교육의 확장성'을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라는 비전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특히 가속화된 혁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초융합(Big Blur)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 'Y교육박람회 2024'는 통합적 사고 역량 강화에 기여할 4차 산업 미래기술과 분야별 진로·진학 특강, 체험형 교육 부스 등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배움의 장으

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박람회의 기본 프로그램은 ▲교육포럼 및 오픈클래스 ▲진로진학 박람회 ▲미래교육박람회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등 5개 분야로 큰 틀을 유지하되, 올해부터 학사일정을 고려한 폭넓은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박람회 개최 시기를 당초 9월에서 5월로 앞당겼다.

또한, 양천공원과 구청 사잇길 1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구청·양천공원·구민체육센터·해누리타운까지 총 5개 구역으로 행사장소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오픈 클래스 강연의 대부분을 야외공간을 활용해 진행함으로써 '교실 밖 교실'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초등 저학년 등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플레이 존'을 새로 도입하고, 행사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상영, 천체관측교실 등 가족참여행사도 마련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부스 운영'도 주목할 부분이다. 구는 외부 푸드 트럭이 아닌 구가 지원한 청년점포와 협업해 박람회 기간 중 핑거 푸드 형태의 간식을 판매할 '디지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 유치와 더불어 청년점포 홍보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Y교육박람회가 '왜(WHY)'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해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올해 박람회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학교 밖 공교육의 구체적 실천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은 양천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도시 브랜드이자 경쟁력인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도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Y교육박람회 2024'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담아 환영합니다.

"Beyond the Classroom" 교실을 넘어 미래로의 도약으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디지털 교육이 펼쳐질 것입니다.

학습·진학·진로 탐색과 융복합 테크테인먼트, 생성형 AI, 평생학습교육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육축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캠퍼스형 박람회' 형식으로 장소와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Y-디지털 오픈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모든 분들이 '교실 밖 교육 현장'에서 '교실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청장 이기재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실 공간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미래사회의 인재로 나아가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Y교육박람회 2024'의 주제를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로 정하고, 양천구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학교 밖 공교육'에 나선 이유입니다.

'Y교육박람회 2024'에서는 EBS와 함께하는 교육포럼, Y-티처스, 미래교실 체험 등 글로벌 교육트렌드의

Y교육박람회 2024 프로그램 안내

5월 16일(목)~18일(토)

16일(목) 스타멘토를 만나다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류 이세돌



17일(금) 진로樂토크
김정경 유튜버 위라클 박위



17일(금) 진짜공부 Y-티처스
스타강사/공부의 신 이다지, 강성태



18일(토) 진로리더십 특강
역사 스타강사 최태성



18일(토) 대학입시설명회
이병훈교육연구소장 이병훈



18일(토) 수능만점자 토크
수능만점자 민준홍, 송영준



16일(목) AI시대 영어교육
EBS 강사, 효린파파 대표 효린파파



16일(목) AI시대 스피치
KCS 전속 아나운서 임지윤



17일(금) AI시대 준비 공부법
EBS고등 수학 대표강사 정유빈



18일(토) 댄스 with 원밀리언
원밀리언 스튜디오 강사 Tina Boo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육 축제
문화예술 교류

Y교육박람회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발굴 경진대회 연다

제2회 챗GPT 영어 스피치 대회, 제2회 유소년 전국드론축구 대회 개최



지난해 열린 제1회 챗GPT 영어 스피치 본선에서 주제발표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 양천구청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18일 'Y교육박람회 2024 전국청소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미래기술의 비판적인 수

용 능력과 창의·논리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제2회 챗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Y교육박람회에서 전국 최초로 영어 말하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열린 첫 번째 대회에서는 전국 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금 규모를 총 800만 원으로 늘렸다. 참가대상은 영어 말하기와 챗GPT에 관심 있는 국내 거주 청소년이며, 중등부(2009~2011년생)와 고등부(2005~2007년생)로 나누어 개인전으로 진행한다.

앞서 예선을 통과한 총 20명(중등부 10명, 고등부 10명)의 참가자는 5

월 18일 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본선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본선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며, 본선 진출자는 즉석에서 챗GPT를 활용해 원고를 작성한 후 최종 영어 스피치를 진행하게 된다.

수상자는 중·고등부 각각 ▲대상(EBS 사장상) 1명 100만 원 ▲최우수상(서울특별시시장상) 1명 60만 원 ▲우수상(양천구청장상) 8명 30만 원씩 총 20명으로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상장과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구는 같은 날 양천공원 드론 경기장에서 '제2회 유소년 전국드론축구 경진대회'를 연다. 드론 축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개념 레저스포츠로,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직접 조종해

공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학생 드론축구팀으로 이달 30일까지 'Y교육박람회 2024' 누리집을 통해 24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초등학교와 중학생 간 연합팀은 구성할 수 없으며, 중학생팀은 단일 학교·공공기관만 출전할 수 있다.

경기는 예선 리그제, 본선 토너먼트제 각각 3세트씩 운영되며 세트 득실로 승패를 결정한다. 모든 경기는 (사)대한드론축구협회의 '유소년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구는 'Y교육박람회 2024 폐막식' 중 시상식을 통해 ▲대상(서울특별시시장상) 1팀 150만 원 ▲금상(양천구청장상) 1팀 100만 원 ▲은상(양천구청장상) 1팀 50만 원 ▲동상(양천구청장상) 1

팀 30만 원 ▲장려상(대한드론축구협회상) 4팀 총 40만 원 ▲참가상(대한드론축구협회 양천구유소년지부장상) 16팀 소정의 상품 등 총 24팀에 상장과 총 450만 원 상당의 상금(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 팀에게는 트로피도 함께 제공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의 자기주도적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Y교육박람회 2024 전국 단위 경진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대회가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Y교육박람회 2024
EBS 와 함께하는 Y-교육포럼
주제 : 스스로 교실이 되는 사람

 <p>최인수 교수(좌장)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및 인지개발학과, 영재교육원 원장</p> <p>불안을 넘어 창의적 자유인으로 성장하기</p>	 <p>이인아 교수(패널) 서울대 뇌인지과학과</p> <p>학습과 기억에 대한 뇌 활동의 신경 메커니즘 중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생애의 특성과 맥락적 인지의 특징</p>
 <p>박은일 교수(패널) 성균관대 인지능력융합학과</p> <p>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수업의 효율성을 통해 실현된 학습 구조화 전략</p>	 <p>김주호 교수(패널) 카이스트 전신학부</p> <p>인간과 시의 상호작용</p>

양천구

AI시대 '스스로 교실이 되는 사람' 주제 교육전문가 포럼 개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EBS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4시 양천구청 3층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AI시대 '스스로 교실이 되는 사람'이라는 대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Y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생성형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합적사고와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며, 미래세대가 다양한 배움의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의 흥미를 발판 삼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도시 양천구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부터 스

로 배움의 동력을 만드는 다양한 학습 방법, 교육주체의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한 담대한 비전까지 선도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포럼은 교육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저명 석학 4명과 함께 'AI시대의 열린교육, 창의성, AI시대 뇌인지의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약 120분 정도 진행된다.

우선, 포럼 좌장인 최인수 교수(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영재교육원 원장)가 '불안을 넘어 창의적 자유인으로 성장하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한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뇌 인지 ▲학습 구조화 전략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등 총 3가지 세션별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Y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교육 플랫폼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히 EBS와 공동 기획한 'Y교육포럼'은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Y교육포럼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도시 양천구가 미래 교육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AI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장이 펼쳐져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Y교육박람회 일환 ‘진로진학 박람회’서 고입·대입 정보를 한눈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진로·진학 분야별 전문가가 전국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설계 전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입·대입 진로진학 박람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Y교육박람회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진로진학 박람회’는 작년 현장의 호응도를 반영해 그 규모를 확대했다. 고교선택제에 따라 전국 23개 고교 진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교진학 박람회’와 진로 전략 수립부터 학습 비법, 입시 고민까지 주제별 맞춤형 밀착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부스’, 스타 강사와 입시전문가, 수능만점자 학생이 연사로 나설 ‘대입설명회 및 특별강연’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첫날인 16일 ‘고교진학 박람회’에서는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4개교(상산고·포항제철고·하나고·현대청운고)와 예술고등학교 2개교(덕원예고·서울공연예술고)가 참여하는 ‘고교 상담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소속 교사와 재학생들이 학교별 특색과 실제 학교생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해 대비 광역 단위 학교 부스(6개)를 확대한 만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16일과 17일 양일간 각 학교의 입학 담당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설명회’에는 지난해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상산고, 용인한국외대부설고, 하나고 등 자사고와 특목고인 대

일외고, 올해 새로 참가하는 포항제철고와 현대청운고, 서울공연예술고를 포함해 관내 13개 고교가 릴레이로 학교별 중점 사안, 입학 전형 등을 소개한다.

17일에는 입시, 진학, 진로 관련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1:1 맞춤형 상담 부스’가 마련된다. 서울시 소재 전·현직 진로진학 교사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총 20개 부스에서 주제별 상담을 이어간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수시, 정시 전형 희망대학 상담(입시 상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고입 진학 및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설계(진학 상담)’와 ‘자녀 성향별 학습방법 및 진로설계 상담(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30분의 심층상담을 통해 입시 컨설팅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 성향과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같은 날 국내·외 유수의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Y-진학멘토단’이 그룹상담을 운영한다. 실제 대학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과 학과별 정보, 원서 접수 공략 방법 등 입시 선배가 들려주는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국무부 산하 공식 유학상담센터(Education USA)와 아이엘츠(IELTS) 공식 주관사인 IDP 에듀케이션이 참가하는 ‘유학 상담 부스’와 서울런 멘토링 및 인터넷 강의 서비스 등 서울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된 ‘서울런 홍보 부스’가 준비돼 있다.

마지막 날인 18일 토요일에는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입시와 진로 리더십을 주제로 명사 초청 ‘대입설명

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해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이다.

먼저 오전에 있을 ‘대입설명회’에서는 ‘SKY 로드맵’의 저자이자 ‘공부가 머니?’, ‘이것이 진짜 공부다’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한 국내 대표 교육전문가 이병훈 소장이 ‘2028 대입 개편안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변화하는 대입 개편안의 핵심과 대비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

이어 특별 프로그램으로 수험생을 위한 ‘수능만점자 토크’가 준비돼 있다. 2018 수능만점자인 민준홍 씨와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로스쿨 재학) 2020 수능만점자인 송영준 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재학)가 각각 ▲스스로 공부의 원동력 찾기 ▲단기간 성적향상 팁(꿀팁에서 수능만점자가 되기까지)을 주제로 마인드 컨트롤 방법과 학습 습관 등을 공유하며 그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솔한 대담의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스타 강사 ‘큰별쌤’으로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최태성 강사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로리더십 특강’을 펼친다. 역사 속 사건들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발전적인 미래 구상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 ‘진로진학박람회’를 올해 규모를 키워 확대 운영한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한 가득 준비했으니 자녀, 부모와 함께 체계적인 미래를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이세돌 9단, 위라클 박위, 스타강사 이다지, 공부의 신 강성태... 교실 밖에서 만나는 ‘특별한 수업’

2024 Y교육박람회 오픈클래스
2024. 5. 16.(목) ~ 5. 17.(금)
양천공원 야외 특설무대

- 스타멘토를 만나다!**
5. 16.(목) 15:00-16:00
박목선제 '이세돌'의 재능있는 입담과 함께하는 입파고와 대국 바하인드 스토리
- 진로樂토크콘서트**
5. 17.(금) 10:30-11:30
위라클 유튜브 박위 가 전하는 공정의 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 진짜공부 Y-티처스**
5. 17.(금) 13:00-15:00
(1부) 스타강사 '이다지'의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를 통해 배우는 힘과 공부를 통해 배우는 법
(2부) 공부의 신 '강성태' 66일 공부습관의 가치, 우리 아이 습관만들기 특급노하우 전수

주최 | 양천구 후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EBS 우리은행

행될 ‘스타멘토를 만나다’에서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펼친 세기의 대국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머쥔 이세돌 9단이 오픈클래스의 첫 주자로 나선다. 이세돌 9단은 이날 ‘인공지능을 뛰어넘은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대국어이기로 보는 인공지능의 현실’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인류의 방향성을 담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17일 오전 10시 반에는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위라클 박위’와 함께하는 ‘진로樂(樂) 토크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학습 분야 스타강사가 출연하는 ‘진짜 공부 Y-티처스’가 기다리고 있다.

2부에서는 ‘공부의 신’ 대표이자 ‘66일 공부법’으로 유명한 강성태 대표가 ‘자기주도학습법 전수 및 우리 아이 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실 밖에서 만나는 진솔한 배움의 장인 이번 오픈클래스 특강이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이 가진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Y교육박람회 2024’의 일환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양천공원 특설무대에서 교실 밖에서 만나는 명사 특강인 ‘오픈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교육박람회의 주제인 ‘교실 밖 교실’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고자 ‘오픈클래스’ 무대를 야외에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공공이 주도하는 ‘교육의 확장성’을 담아낼 전망이다.

또한, 화제성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 멘토가 진로·진학부터 삶의 자세, 미래방향성까지 스토리텔링형 특강을 진행하며 참가자와 진솔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먼저 16일 박람회 개막식 직후 진





▲ 양천공원에서 타이탄 로봇쇼를 관람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 양천공원에서 타이탄 로봇쇼를 관람중인 관객들의 모습

Y교육박람회 2023



▲ 양천공원 에어돔 내부 부스 체험 전경



▲ 양천구, VR·AI·로봇 관련 미래교육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양천공원 드론 촬영 전경



▲ 양천구, 제1회 유소년 전국드론축구경진대회 전경



▲ Y교육박람회 중 진로진학박람회 현장



▲ 양천공원 타이탄 로봇쇼에서 인사말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기초자치단체 최초 전국단위로 사흘간 펼쳐진 첫 박람회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연인원 3만 2천여 명 방문 추산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변화하고 있는 교육 트렌드와 방향성 등을 공유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Y교육 박람회 2023'를 개최했다. 박람회 기간인 2023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양천구청 일대에서는 5개 분야 16개 주제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연인원 3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전국 규모로 개최한 Y교육박람회는 미래교육에 대한 정보교류와 방향성 등을 다룬 공론의 장을 열어 교육 일선지 답게 한발 앞선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남다른 스케일의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화려한 VR 드로잉 아트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많은 내빈의 축하가 이어지며 Y교육박람회의 힘찬 출발을 선포하는 디지털 세레모니로 마무리됐다. 이어 EBS와 공동 주최한 'Y-교육 포럼'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윤 교수의 온라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학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인재상과 교육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멘토와 함께한 '진로락토크콘서트'와 '스타멘토 강연'에는 학생,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와 청소년 대표 3명이 무대에 올라 운동선수로서 시작부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진솔하게 소통하며,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꿈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Y교육박람회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전국규모의 행사인 만큼 미래교육을 선도하겠다는 큰 포부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왔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Y교육박람회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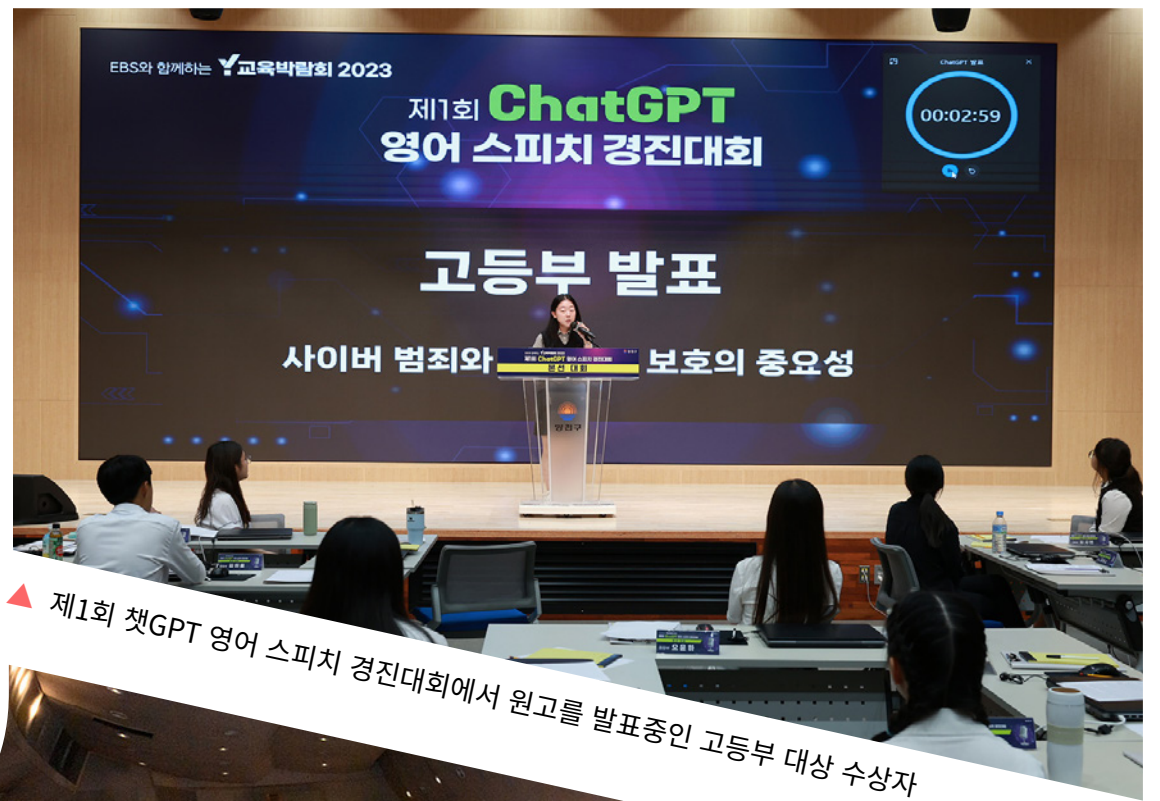
▲ Y교육박람회2023 폐막식에서 내년을 기약하며 환송중인 시민들



▲ Y교육박람회 진로락콘서트 현장을 찾아 관객과 교감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 미래교육박람회 알티노(AI자율주행 로봇) 체험중인 청소년들의 모습



▲ 제1회 챗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에서 원고를 발표중인 고등부 대상 수상자



▲ 박윤기 선수가 멘토로 나선 진로락콘서트 현장 전경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대비, 총 963억 투입

교육부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발표,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질적 개선에 총력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

사진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물적 인프라(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와 인적 인프라(관련 전담인력 등)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

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유사한 교실 환경(2개 내외)에 기보급된 디지털 기기를 구비하여 개발사가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 '디지털 기기 전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다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행정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은 분산된 교육행정 데이터를 제공·연계·공용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데이터(교육기본통계, 정보공시 등)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 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플랫폼이다.

3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

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4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함께차담회', 현장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논의된 과제 82건 중 54건(65.9%) 추진

분야	학교수업 교실혁명	학생, 학부모 등	교권보호 업무경감	늘봄학교	영유아	학교폭력 학생건강	특수교육
횟수	5회 (1,4,5,6,21차)	4회 (14,17,18,23차)	3.5회 (2,13,19,22차)	3회 (8,15,16차)	3회 (9,10,12차)	2.5회 (3,11,19차)	2회 (7,20차)
점유율	21.70%	17.40%	15.20%	13.00%	13.00%	10.90%	8.7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총리가 주재하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차담회'(이하 차담회)는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늘봄학교,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주요 정책 관련 총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는 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교육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의 자발적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담회 제안 내용

을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부는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2024.3.1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2024.4.15.)>을 발표하였다.

각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상수업나눔 광장을 개설하여 현장의 자율적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매년 100명)을 신설하는 등 수업혁신 교사의 성과 보상(인센티브)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천받은 연수를 이수하면, 연수 이력을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배치) 방식을 통해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 방문형 차담회를 개최하여 교원·학부모·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늘봄학교

전담인력 신속 배치, 강사 구인난 해소, 늘봄 공간 부족 해결,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차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5.)>에 담아 발표하였고 현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1~2회 부총리 주재 '함께차담회'뿐만 아니라 실·국장 주재 '함께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교육 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함께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습,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https://www.kedi.re.kr/studentssupport>)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특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선우 기자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기업 기술 이전 지원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5월 29일(수)까지 참가자 모집
선발 60개 팀, 교육 및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거쳐 특허 출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8일(수)부터 5월 29일(수)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제안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수)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누리집(<https://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독창성, 유사 아

이디어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60개 팀을 1차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는 발명 역량 강화와 아이디어 권리화 등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최종 검증을 거쳐 50개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

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정부 5개 부처 협약 체결하여 운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장관 조태

열),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제

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헌 기자

홍천군

Happy Challenge

홍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일상의 여유를 같이 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홍천의 '행복한 도전'입니다

HONG CHEON EXPRESS

Impossible » I'mpossible

대학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 지배하는 곳이며,
정답을 의심하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념과 의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곳이고,
무엇보다 대학은 위기를 용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속가능 캠퍼스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젊고 강한 대학!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제2캠퍼스:**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 40번길 30 **입학상담:** 031)870-3211~7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비전·가치 담은 로고 공개



늘봄학교 로고 사진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 늘봄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늘봄학교 로고'를 공개하고, 이를 모든 초등학교와 기관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로고 공모전'을 운영하며, 총 197개 작품을 접수했다.

이들 작품 가운데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했고, 전문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부산 늘봄학교 로고'가 탄생했다.

이 로고는 전체적인 모양은 늘봄학교의 알파벳 이니셜 'N'을 형상화했고, 색상은 바다와 부산을 상징하는 파란색, 안전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사용했다.

이는 부산교육청의 안전하고 따뜻한 양질의 늘봄학교를 의미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보살핌·

학습형 늘봄을 제공하겠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로고를 부산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기관으로 보급해 학교 내 패찰, 안내판, 문서, 홍보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제작 과정에 교육 가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 '늘봄학교 로고'는 부산 늘봄학교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로고에 담긴 의미처럼 모든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대전,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92.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가 9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 3월 29일 발대식 후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6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은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늘봄학교에 대한 인식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늘봄학교에 대한 인식도와 늘봄학교(초1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모두 9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늘봄학교의 기본 프로그램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2.3%

집계되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만족 이유(중복답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음 38% ▲프로그램의 다양성 29.2%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14.2% ▲운영 시간의 적정성 17.7% 순으로 답변하였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0.8%로 집계되었다.

돌봄서비스 만족 이유(중복답변)는 ▲프로그램의 우수성 29.4% ▲운영 시간의 적정성 29.4% ▲돌봄교실 공간 만족도 23.5% ▲수용인원의 적정성 16.5%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언론, 체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 모니터링단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학기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서울, 총 26개 학교서 급식 잔식 버리지 않고 기부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후 오락(樂)실'을 위한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이하 빈그릇 운동) 26교를 지정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1,213교의 2023학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은 총 34,205톤, 66억원(1인당 평균 38.3kg, 7,500원)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버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먹거리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와 지역 기부단체는 급식 잔식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복지 기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먹거리 생태전환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에서 식사가 끝난 후 위생적으로 소독된 용기에 잔식을 담아 기부받는 단체에 연락하면, 기부받는 단체는 이를 수령하여 소분 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된다.

보건안전진흥원 식생활지원과는 빈그릇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시키고, 우수기관과 교직원에게는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서울교육청,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녹색공간, 행복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틈새공간 키우기 사업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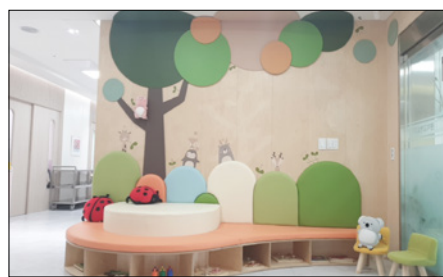


사진 서울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안전하고 창의적인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2024년「틈새공간 키우기 사업」대상 학교 (90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틈새공간 키우기 사업」은 학교에 버려지는 자투리 공간을 △녹색공간(수목·생화로 만드는 실내정원, 생태교육 체험공간) △휴식공간(학생 쉼터) △놀이공간(실내 놀이터) △독서공간(작은 도서관) △실외공간(야외 교육장소) 등으로 학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다.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틈새공간 키우기 사업」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학교의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10교 증가(23년 80교→ 24년

90교), 사업비는 65%(23년 44억→24년 79억)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내 수목과 생화로 만드는 「실내 녹색정원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학교 내 그린존을 만들어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해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교,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틈새공간 키우기 사업」으로 학생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교육 공간 재구조화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 자투리 공간을 녹색공간, 행복공간으로 변화시켜 미래교육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생태 친화적 학교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스승의 날 맞아 '1일 교사'로 활동



'1일 교사'로 나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사진 경북교육청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경산시에 있는 하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1일 교사'로 나섰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18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힘이 되는 시'라는 주제로 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 진정한 행복의 의미, 스토리가 있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 삶의 원동력은 모든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도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힘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고 교사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50여 분 동안 유쾌하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감 참여 수업은 학생들이 평소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선생님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선우 기자

강원교육청,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사진 강원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4일, 5월 민방위의 날을 맞아 14시부터 20분간 모든 소속기관 및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러-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은 물론, 북한군

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민방공 상황에서의 대피요령과 통제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피절차를 숙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훈련은 기관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요원 통제하에 △학교 내 지하로 대피 △대피시설에서 라디오방송 청취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방독면 착용 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의 특성상 유사시 북한군 방사포의 공격으로부터 학생들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전남,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앞두고 '2030 미래교실' 구축 완료



(위)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전라남도여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구축된 미래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목포창의융합교육원에 구축돼 있는 목포 미래교실

사진 전남교육청

전자칠판 · 로봇 지원 등 AI 개별학습 · 토론 중심 학습 환경 갖춰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학교 수업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2030년 미래교실의 모습을 현실에서 만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이번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 미래교실'을 전라남도여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목포창의융합교육원 두 곳에 사전 구축해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교실'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지난달 30일 여수 미래교실을 공개한 데 이어 9일 목포에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 구축된 사전 미래교실은 29일 박람회장에서 선보일 총 6개 '글로벌 미래교실'의 방향성을 함축한 모

델이다. 사전 미래교실 전면 중앙에는 대형 전자칠판이 들어서 수업 자료를 볼 수 있고, 로봇이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습 지원을 돕는다. 교실 공간은 학생들 간 적극적인 토론·소통·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배치됐으며 1인 1 미디어 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인류가 오래 상상해 온 미래 학교의 모습이 실제 눈앞에 구현된 셈이다.

무엇보다, 개별학습 맞춤 지원이 가능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수업 진행이 어렵지만, 미래교실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습분석을 통한 수준별 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된 미래교실은 스케줄에 따라 학교급별 2030 미래수업이 진행되며, 사전 협의·예약을 통해 사

용할 수 있다. 박람회가 막을 내린 뒤에도 미래교실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장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보완 과정을 거쳐 여수·목포의 미래교실을 '글로벌 교실'의 모델로 안착·확산해 나가는 계획이다.

한편 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는 전남 교사들 137명이 고민한 미래수업 모델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간 총 59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주제는 세계시민(다문화), 디지털, 지역 연계, 생태전환 등 네 가지다.

박람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kglocaled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광주YMCA와 5·18민주묘지 합동참배



5·18민주묘지 합동참배

사진 광주교육청

광주푸른꿈창작학교가 14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영령들의 안식지인 5·18민주묘지 참배했다고 밝혔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위탁단체인 광주YMCA와 공동참배를 추진해 광주YMCA 나일도 이사장,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이계양 교장,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허행규 학생회장의 공동 헌화를 통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

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이계양 교장은 이번 참배로 "오늘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깨닫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더불어 빛나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대안교육과 지역사회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명화 기자

세종 누리학교 아이들은 숲에서 놀며 자란다



'숲에서 놀(놀며) 자(란다)!' 숲 체험 프로그램

사진 세종교육청

세종누리학교(교장 최기상, 이하 누리학교)는 유치원 원아와 초등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인 '숲에서 놀(놀며) 자(란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숲에서 놀(놀며)자(란다)!' 활동은 지난 3월에 시작되어 오는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산림청, 북권위원회, 한국 산림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와 사회적협동조합 '꾸물'의 숲 해설 전문 강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체험하는 활동은 도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 교장은 "참여한 학생들이 환한 미소와 큰 웃음소리로 즐거움을 표현하고, 관심이 가는 자연물이나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는 이번 체험을 계기로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산림청

천년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6개월



**감염목의 훈증처리 후
6개월까지는 훼손 및 이동 금지**

※ 딸감등으로 무단사용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찰질방, 조경업체 등
유통·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작성비치**

※ 위반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588-3249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시 신고**

※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알기



Q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3년 내 멸종하나요?

A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 재선충병이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이 맞나요?

A 재선충병과 '에이즈'와는 감염·치료 특성 등이 다르니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류에 피해를 입히는 1mm 내외의 작은 선충으로, 감염 시 100% 고사시키는 병.

진화하는 생성형 AI에 맞춰 교육 패러다임도 전환할 때

김남주

아름디온교육신문 주필

사춘기 시절, 누구나 봄, 즉 이성을 동경한다. 그 소년은 그 소녀에게, 그 소녀는 그 소년에게 야릇한 감성을 품게 된다. 실제 인간은 아니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프로그램 속 '그녀'(Her)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상상 속의 그녀는 이제 뇌리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녀가 아니다. '그녀'(Her)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 개봉된 공상과학(SF)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일년 뒤인 2014년 5월 우리나라에서 '그녀'라는 제목으로 개봉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그녀'는 이제 낯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코딩에 능한 학생들은 '그녀'의 내막을 간파할 수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2025년, 극중 인물 시어더어 트윈블리는 낭만적인 편지를 대필해주는 전문 작가다. 고독하고 내향적인 남성이다.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다 사랑하게 됐고 결혼까지 했던 캐서린과 별거한 이후로 줄곧 삶이 즐겁지 않다. 시어더어는 AI(인공지능)로 말하고 적응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기기를 산다. 그는 처음 그 운영체제가 여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난 후 그녀(Her)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한다. 사만다가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능력은 시어더어를 놀라게 한다.

생성형 AI인 사만다가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생성형 AI는 그저 일상의 한 단편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교육현장에 거센 회오리를 몰고 올 기세다. 이미 AI는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탁월한 기능을 뽐내면서 '일타'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의 진운(進運)이 하루가 머다고 파죽지세로 뻗어 나가는 가운데 교육계도 커다란 도전을 받아오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커리큘럼이 속속 도입되고 있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AI가 훈장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프라인의 공교육 현장은 AI의 득세로 점차 밀려나는 인상이 강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연일 새롭게 등장하는 IT(정보기술) 혁신 강풍에 교육 패러다임도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진화된 모델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교육계의 환골탈태를 강요하고 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크게 낙후될 게 분명하다. 인간 못지않은 고도화된 지

능으로 무장한 챗봇이 교실을 노크하고 있다. GPT 개발사 오픈AI가 14일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GPT-4o'(GPT-포오)를 공개하면서 충격과는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미라 라이브 행사를 통해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각종 기능을 시연했다. GPT-4o는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새 모델명의 'o'는 모든 것이라는 라틴어 '옴니(omni)'를 뜻한다. 옴니는 옴니포텐트(omnipotent)란 의미인 것 같다.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다. 텍스트 이해,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이 통합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모달(Multimodal, 다중 모드) 모델이기 때문이다. 채팅창에 입력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나 제시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답을 말할 수 있다. 이전 모델인 GPT4 수준의 추론을 훨씬 빠른 속도로 제공한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이 AI 모델은 종이에 수학 문제 (3x+1=4)를 써서 보여주고 답을 말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하자, 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해 단계별 풀이를 도왔다. 외국어 음성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능도 시연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톤으로 바뀌가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육 현장에서 GPT-4o 모델은 얼마든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지 프로그램일 뿐이어서 대면 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이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고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GPT-4o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 음성 데이터 처리 성능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데이터 처리 성능이 개선됐다. 오픈AI에 따르면 GPT-4o는 수학·물리·화학·법학·윤리학 등 57개 과목을 시험하는 다중언어작업이해(MMLU)에서 88.7%의 점수를 받았다.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과학계도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연구자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이 출판하는 논문의 이해를 도울 이미지 자료를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다. GPT-4o는 이미지 생성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과학 일러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활

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발전하면서 AI끼리 대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호 학습하는 것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 현장에 우리 청소년들이 입지(立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AI가 무분별하게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AI 발전 속도만큼 관련 윤리도 빠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AI 모델 서비스를 활용할 때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성을 개발(啓發)한다는 교육철학의 근본은 바뀔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더욱 유용하고 실익이 있는 도구라면 교육현장에서 도입을 꺼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소스코드 교육이 한창이다. 컴퓨터에 익숙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생성형 AI는 낯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GPT-4o 모델과 같은 최첨단 프로그램 서비스가 교실에 적극 도입되는 것도 점차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생성형 AI가 대세가 된 지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연이어 등장할 새로운 모델과 더욱 친해져야만 하는 숙명인 것이다.



홍석기

컨설턴트, 기업교육강사

저서

<잠자는 학생은 깨워야 한다>
<시간의 복수> 외 다수

슬픈 추억 덕분이다. 잘 나가던 글로벌 기업이 IMF 외환위기를 맞아여 정리하고, 좋게 말해서 "구조조정

그건 정리하고 덕분이었어

또는 명예로운 퇴직(명예퇴직)"이었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다시피 한 구조조정, 그 때는 그런 줄 알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정부의 실책(失策)을 모면하려는 술책이었다.

이러진 "이직(離職)과 전직(轉職)"은 오래가지 못했다. 15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한 번 그만두고 나니, 습관이 된 것이다. 2~3년에 한 번씩, 서너 군데 다니다가 그만두고 결심했다. "다시는 직장생활 하지 말자."

좀 쉬고 싶었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방향을 했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과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을 오르내리며, "뭘 해먹고 살까?" 고민을 하던 중, 멋진 책을 한 권 샀다. 나폴레옹 힐이 80여 년 전에 쓴 "성공의 법칙(The Law of Success)"를 두어 번 읽고,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살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 오자마자 그 책을 요약하고 강의 준비를 했다. 강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우선 책을 쓰기 시작했다. 번역에도 뛰어들었다. 유창하거나 능숙한 영어실력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 경계가 없었다. 한계를 깨고 싶었다. 그러다가 잘 나가는 강사들을 만나고,

교수를 찾아 다녔다.

예전에 알던 분의 추천으로 대학 시간 강사가 되고, 나중에 겸임교수가 되었다. 박사학위가 없어 정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겸임교수와 시간 강사로 살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그 때, 재직 중에 대학원을 다닐 때, 박사학위까지 받아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평생 남아 있다.

책 서너 권을 번역하고 나니 외국인들 모임에서도 불러 주었다. 또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경영자 모임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생들과 경영자 분들께 강의를 할 때마다 가르친 것보다는 배운 게 훨씬 많아서 행복한 느낌이다.

이 모든 건 그 때, 회사에서 정리해

고를 당한 덕분이었다. 물론, 공장을 다니다가 반장과 싸우고 대학을 간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을 들으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건 다행이다.

최근에 다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난리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을 게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아 니, 지구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 등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건 개인마다 다르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꿈꿀 수 있다.

원하는 성공과 행복은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노력을 하면 "운(運)과 팔자의 한계"를 넘나들 수 있다. 그것도 운이다.



전준우

작가, 강연가, 책쓰기 컨설턴트

저서

<배우론>, <교육의 힘>
<탁월한 책쓰기> 외 다수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틈날 때마다 습작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신변잡기 형식의 글을 여기저기 적어보는 것이다. 다독하고 다작하며 다상량하는 것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다.

가장 좋은 문체는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의 펜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시, 산문, 잡문을 가리지 말고 부단히 글쓰기 연습을 하라.

-에라스무스(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인간의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도록 창조되었다. 펜을 들고 부단히 글을 써야 하는 이유다. 글씨를 못 쓰는 나로서는 펜을 들고 글쓰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쓴 글인데 알아보지 못해서 고심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다행히 글을 쓰

습작의 습관화

기에 최적화된 훌륭한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아이패드와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글을 쓸 수 있다, 구글 킵, 노션, 브런치, 블로그 등등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들이 즐비하다. 그마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녹음기를 켜두고 글로 적고 쓴 내용을 녹음해 둔다. 나중에 옮겨 적으면 그것도 좋은 글이 되고 콘텐츠가 된다.

다양한 부류의 글을 기록해 볼 것을 권유하지만, 신변소설과 대본 형식의 수필이 추천할 만하다. 즉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토대로 삼아 소설을 쓰거나 대본으로 기록해 보는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과 만화

도 대부분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일상을 바탕으로 글을 쓰되, 비극보다는 희극 분위기의 대본과 소설을 기록하다 보면 소소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습작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알맞은 펜, 혹은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펼쳐서 기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몽블랑 만년필보다 1,000원짜리 볼펜이 더 좋고, 십수만 원을 호가하는 프랭클린 플래너보다 구글킵이 편하다. 상당한 악필이기에 얻어지는 이점이라면 이점인 셈이다.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Y SOUL

“혼자 공부 버거울 땐?”

서울런 ♥ EBS ♥ 서울런
EBS ♥ 서울런 ♥ EBS ♥
서울런 회원 전용
EBS 오 프라인 특강
서울런 안에서 EBS 바로 이동



공부는 더 잘 되고, 교육 격차는 더 줄어들도록!
교육사다리 서울런과 공교육 대장 EBS가 맛있는 혜택 준비했어요!

간편 대상확인!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취약계층)의 성적향상을 위한
서울시 운영 교육 플랫폼입니다

- 무제한 무료 인강
- 온오프라인 멘토링
- 언제든지 회원가입

서울런 고객센터 1533-0909